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 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  
<http://www.jthink.kr>

▪문의 :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  
(063-280-7111)  
▪담당자 : 지역개발연구부 오병록 부연구위원  
(063-280-7165)

보도시점 : 2019년 9월 3일(화)부터

## 전북연구원, 빈집 재생으로 지역 활력 제고하자

인구감소와 지역쇠퇴 극복 수단으로 빈집 활용 제안  
빈집을 주거공간, 문화·복지공간, 경제활력공간 등으로 활용  
청년 및 귀농귀촌인 참여... 도시재생 활성화 견인

[ 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 ]

- 도내 빈집을 주거공간, 문화·복지공간, 경제활력공간으로 활용해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- 빈집을 방치하면 마을의 흉물이 되고 마을의 전반적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근원이 되는 반면, 이를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면 도시재생의 지역자산이 될 수 있어서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이슈브리핑 ‘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’(통권 205호)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‘빈집’을 활용해 주거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의 혁신과 활력을 이끌어 내자고 주장했다.
- 2018년 현재 9,763호인 전북의 빈집 중 40.4%는 상태가 양호한 빈집이므로 주거, 문화복지, 지역활력 등을 위한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.

○ 구체적으로, 빈집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지역커뮤니티 시설 및 노인 돌봄의 노인복지 시설 등의 문화·복지공간, 지역의 활력을 높여주는 청년들의 창업공간 또는 지역예술가의 작업·전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자는 제안이다.

○ 그러면서, 서울의 '빈집 살리기 프로젝트, 경남의 '더불어 나눔 주택', 목포의 '어르신 한울타리 행복주택'과 '빈집 갤러리', 공주의 원도심 주차장, 일본의 카페, 체험형 숙박시설, 지역 커뮤니티공간 등 빈집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.

○ 오병록 부연구위원(지역개발연구부)은 “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'희망하우스 빈집재생' 프로젝트처럼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주체인 청년들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과 문화활동가를 위한 문화·예술공간으로 활용”하는 것과 더불어 “노노케어(老老Care)\*를 위한 어르신 공동체주택 등 주거공간, 지역민의 문화 및 노인복지를 위한 문화복지공간, 청년 창업과 지역예술가 작업·전시를 위한 경제활력공간 등으로 활용”할 것을 주장했다.

\* 노노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질병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면서 서로 말벗이 되는 등 상호작용을 통해 혼자사는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임.

○ 또한 “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빈집실태를 조사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추진기틀을 다지고, 빈집은행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간 빈집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며 빈집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재생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